

“어느 주유소가 더 싸가” ... 기름값 공개 첫날 관심 폭발

접속자 몰려 ‘주유사이트’ 다운

전국 최저-최고 휘발유값 차이 8당 247원

기름값 싸 주유소 북적 ... 광주·전남은 한산

주유소 가격공개 첫날 공개를 환영하는 소비자들의 가격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관심이 폭증하면서 ‘주유소 종합정보제공시스템(www.opinet.co.kr)’ 사이트가 다운됐다.

서울지역의 경우 기름값이 싸 주유소로 차량들이 몰리기도 했으나 광주·전남지역 주유소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또 지역 주유업체는 주유소 가격 공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으며 정유사의 도매가격 공개도 이뤄져야 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15일 공개된 주유소 정보제공 시스템은 오전 9시 개통직후 몰려드는 네티즌들의 접속시도를 견디지 못하고

다운됐다. 이후 석유공사측은 긴급복구에 나섰다. 밀려드는 네티즌들로 인해 하루종일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다. 시스템은 16일 복구될 것으로 보인다.

정유업체와 주유소업체는 이같은 상황을 소비자들의 기름값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향후 여론으로부터의 휘발유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인하 압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날 주유소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서울지역의 경우 기름값이 싸 주유소로 차량들이 몰렸으나, 광주·전남지역에서 이같은 움직임은 없었다. 이에 대해 1천200여개소 회원을 보

유한 한국주유소협회 광주·전남지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결국 집근처의 주유소로 갈 수밖에 없다. 주유소 가격공개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유업체측은 향후 주유소로부터의 가격인하 압박이 거세질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주유소측이 가격경쟁에 내몰리면 필연적으로 정유업체들에 집단으로 가격인하 요구를 해올 것이기 때문이다.

정유업체 관계자는 “휘발유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이렇게 높을 지 몰랐다”며 혀를 내둘렀다. 그는 이어 “도매가격 인하를 요구해온 주유소가 오늘 하루에만 수십곳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정부가 15일 개통한 기름값 인하 프로젝트 1호인 주유소 종합정보제공시스템(www.opinet.co.kr)에 표시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다르다는

지역이 나오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같은 차이에 대해 지식경제부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정확한 원인을 아직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단 주유소에서 카드 결제시에 쓰는 단말기의 가격 세팅이 잘못됐을 경우 잘못된 가격이 표시될 수 있고 소비자들이 할인이 되는 각종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서비스 등을 이용해서 싸게 결제할 경우 일반적인 판매가격과 다른 가격이 올라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이날 등재된 전국 8천여 곳의 주유소 가운데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싼 주유소는 서울 역삼동 M주유소로 8당 1천847원이었고 가장 싼 주유소는 경남 창원시의 H주유소로 1천600원을 표시했으며 두곳의 가격차가 1당 247원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광주일보-여경협 공동 ‘여성경제인 포럼’...김장길 호남캐네기연구소장 특강



광주·전남 여성경제인들이 김장길 소장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15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린 포럼에는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직장인 리더십·자기개발 절실”

김장길 호남캐네기연구소 소장은 새로운 지식을 그저 알고 있는 수준에 그칠 게 아니라,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자기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15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광주일보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가 공동주최한 ‘제 31회 광주·전남 여성경제인 포럼’에 강사로 나선 김 소장은 “이같은 행동이야말로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삶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 소장은 리더십과 자기개발을 위해서는 ‘미인대칭비율’을 실천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미인대칭비율’은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수록된 우호적인 인간관계 원칙 9가지 중에서도 핵심

에 속하는 5가지 원칙을 지칭한다. ‘미소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비난·비판·불평하지 말라’는 머리글자를 담고 있다.

이들 5가지 원칙을 잘 실천한다면 열린 마음을 기반으로 우호적인 대인관계를 조성하고, 신뢰와 협력이 넘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골자다.

실제 휴렛패커드를 비롯한 국내 외 많은 기업들이 ‘미인대칭비율’을 사내 캠페인 문구로 활용, 지속적인 실천활동을 통해 직장분위기를 일신하고 매출신장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게 김 소장의 얘기다.

김 소장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식상한 이론이지만, 평소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이론”이라며 “여기에 참석한 여성CEO 뿐 아니라 모든 직장인들이 이런 원칙을 습관으로 만들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표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소장은 5가지 원칙 가운데서도 ‘우호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비블(비난·비판·불평)’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아울러 가정이나 직장 내에서의 칭찬은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나 일을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는 동기부여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강연에는 광주·전남지회 회원과 박준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중소 지재권 사업아이템 활용 특히 스타기업 육성 힘쓰겠다”

한국발명진흥회 제 5대 광주지회 고정주 회장



“특히 허를 비롯한 산업재산권에 관한 종합컨설팅을 통해 지역기업 살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 개발에 관심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15일 취임한 고정주(59·사진) 한국발명진흥회 제 5대 광주지회장은 “특히 광주지회 산하 광주 지식재산센터가 광주시와 특허청이 공동주관하는 ‘2008년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본격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지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출원된 지식재산권은 특허 2천306건을 포함, 4천377건에 달하지만 권리화나 사업화로 이어진 것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고 지회장은 “이들 지식재산권이 성공적인 사업아이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특히 스타기업을 육성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지회장은 에어컨·냉장고 등 생활가전을 생산하는 삼성광주전자 협력업체인 나영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

지방 건설경기 ‘침체의 늪’

미분양 여파 ... 1분기 전남 4곳 등 부도업체 수 37% ↑

올 들어 광주·전남을 비롯한 지방 건설업체가 분양시장 침체와 최저가 낙찰제 확대 등의 여파로 잇따라 무너지고 있다.

특히 전남의 경우 미분양주택 급증 등의 여파로 올 1·4분기에만 건설업체 4곳이 경영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는 등 ‘수난’을 겪고 있다.

15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1·4분기에 부도를 낸 건설업체 수는 26개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9개)에 비해 36.8%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된 건설업체의 붕괴가 또 들어서도 가속화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의 부도업체 수가 6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4개), 인천(3개), 전북(3개), 경남(2개), 부산(1개) 등의 순이었다.

전남의 경우 1, 2월에만 4개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지역 건설경기 침체

정도를 실감케 했다. 광주는 올 들어 부도업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거립건설 등 종합건설사 9개사, 전남에서는 10개사 잇따라 부도처리되면서 심각한 ‘부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처럼 건설업체의 붕괴가 잇따른 것은 미분양 적체 등 시장 침체와 업계의 과잉경쟁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최저가 낙찰 공사를 많이 따낸 업체일수록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현행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건설업체의 부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재고하고 대출제한 등 주택거래관련 규제는 적극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중소 무역구제지원센터 가동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영태)는 15일 지역본부와 순천출장소(순천시 조례동)에 무역구제지원센터를 설치,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무역구제지원센터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는 합법적인 산업보호기관으로,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국내 기업의 피해를 막고 수출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됐다.

지원센터는 반덤핑, 상계관세, 불공정 무역행위, 세이프가드 등 중소기업의 무역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홍보, 무료상담, 실무교육 등을 전개하

게 된다. 또 무역과정에서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이 구제받을 방법을 모르거나 구제신청에 들어가는 막대한 소요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피해를 감수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무역피해구제자금(변호사·회계사·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이내,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되며, 무역구제신청을 위한 사전조사나 신청비용도 지원돼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복합신약 ‘유크리드정’ 출시

(주)유유는 티클로피딘산염과 은행잎엑스를 복합한 신약 ‘유크리드정 80mg’을 최근 식약청으로부터 품목허가 승인을 받고 오는 6월 출시한다.

유유는 1998년부터 10년여의 연구 끝에 이 제품을 개발했으며, 2000년 국내 특허등록을 비롯해 미국·일본·중국·유럽 등에 특허등록을 마쳤다.

유크리드정은 뇌졸중·심근경색·만성동맥폐쇄증에 뛰어난 효과를 지니며 특히 티클로피딘에 의한 중증 부작용인 무과립구증을 줄여준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주) 조이트레블
광주광역시 남구 동광로 1가 11번지 101호
대표 전화 (062) 234-3222

신인 아파트 분양

329,000
369,000
389,000
399,000
629,000
449,000

9억 가량의 땅!
가동 학교 역안쪽 상층
오락공원 부영...

신인 아파트 분양

대면 / 아류 / 41평	619,000
대면 / 아류 / 41평	699,000

미국 비자 인터뷰 190,000
문의: 002-233-5300

749,000
799,000
849,000